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저 들오리가 어디로 날아갈까

학승이 물었다.
“노스님의 가풍은 어떻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병풍은 찢어졌어도 골격은 남아있어.”

問 如何是和尚家風 師云 屏風雖破骨格猶存

선사는 비유를 들더라도 없는 말을 지어내 하지는 않는다. 이 질문을 했을 때 조주의 관음원에 실제로 병풍이 오래되어 너덜너덜 찢어진 것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조주 스님은 스스로 가난하게 살고 시골 노인 처럼 살기를 원했다. 그래서 신도들에게 단 한 번도 구차하게 편지 쓴 일이 없다. 선상(禪相)이 부러지자, 장작개 비로 묶어서 사용했을 정도였다. 이를 사람들이 새로 만들어 드리려 하면 한사코 거절했다. 그런 살림이다보니 병풍이 오래되어 찢어진 상태 그대로 서있었던 것이다.
병풍이 찢어졌지만 골격은 서있다는 것은 늙은 자신에 비유한 것이다. 비록 몸은 늙어 허술하고, 이빨이 다 빠져 하나만 남았지만, 정신만은 분명하게 서있어서 아직은 선(禪)을 가리킬만하다는 말이다. 이것이 바로 조주의 가풍이었던 것이다.

최근 큰 스님들이 돌아가신 뒤에 제자들이 그 행적을 기리는데, 지나치게 외형적인 것만 크게 부각하려는 경향이 있다. 평생 누더기 옷을 입고, 이쑤시개를 여러 번 쓰고, 검정 고무신을 신었고, 암자에 단정하지 않고 산 것이 뭐 그리 칭찬할 만한 일인가, 이것도 다른 쪽에서는 배부른 자의 취향이었다는 비판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진정 큰 스님이 당장 세기 박격정을 단 한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다면 말인가? 당시 젊은 스님들은 열화와 같은 포교일념으로 도시 한 가운데서 나쁜 공기 마셔가며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병들어가며 피땀 흘리고 있는 와중에 큰 스님들은 기와공골에서 호의호식하고 살았는데 무엇이 그리 칭찬할 만한 일인가?
계다가 이렇다 할 인재를 길러 놓지도 못했는데, 무엇이 그리 자랑스러워 일반인도 생각지 못할 초호화분묘를 만들어놓는단 말인가? 천태종 뒷산쪽대기에 올라가 보라. 초라한 개장주 분묘가 사람을 압도한다. 죽은 후에도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지 않는가.

학승이 물었다.
“불전(不遷·옮기지 않음)의 뜻이 무엇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네가 말해보아라. 저 들오리가 동쪽으로 날아갈 것인가, 서쪽으로 날아갈 것인가.”

問 如何是不遷之義 師云 你道這野鴨子飛從東去西去

원래 만물이 나온 '그곳'은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형태도 없다. 그러나 당연히 어디로 옮길지 없는 것이다. 만물이 그곳에서 나왔다고 하기도 하고, 그것이 만물로 옮겨졌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아무 것도 옮겨진 것은 없다. 이 말을 알아듣는다면 진리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 사람이다.

조주 스님은 불전에 대해서 “저 들오리가 어느 쪽으로 날아가겠느냐, 동으로 가겠느냐, 서로 가겠느냐? 그것에 대하여 내가 전혀 알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불전이다”라고 말했다.

이 불전에 대해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덕산탁발화’에 대한 깨달음도 일어나야 한다. 하루는 식사 시간을 알리는 종도 치지 않았는데 방장 덕산 스님이 발우를 들고 식당으로 가고 있었다. 설봉 스님이 그것을 보고 덕산 스님에게 물었다. “종도 치지 않았는데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자 덕산 스님은 고개를 숙이고 방장실로 되돌아갔다. 이 일을 두고 예로부터 말이 많다. 그때 덕산 스님이 뭐라고 한 마디 짚은 했어야 했는데, 왜 말없이 되돌아갔단 말인가 하고 반문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돌아가는 것이 옳다. 거기서 무슨 말이 더 필요하단 말인가 하고 덕산 스님을 옹호하기도 한다.

덕산 스님의 사제 암두 스님이 저녁 때 이 말을 듣고, 덕산 사제가 근사한 한 마디를 몰랐던 것이라고 평했다. 이 말을 전해들은 덕산 스님이 암두에게 물었다 “자네라면 그때 뭐라고 하겠나?” 그러자, 암두 스님이 덕산 스님 가까이 다가가 귀속말로 뭐라고 한 마디 했다. 그후 덕산 스님의 설법이 확 달라졌다. 여기서 또 하나의 화두가 생겨났다. 그때 암두 스님이 덕산 스님 귀에 대고 뭐라고 말했을까? 이를 ‘암두밀화’ 화두라고 한다.

옛 선사들의 말 향기가 참 멀리도 간다. 그런데 이 두 화두에 쇠기를 박아버릴 한 마디가 있다. 나에게 그것을 묻는다면 다음과 같이 말하겠다. “두 사람은 단 한 번도 봄빛을 받아본 적이 없다.” 무불선원 선원장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8



온 세상에 욕망의 불길이 타고 있다 <장로니게>

불, 불이 났다. 불이야! 불이야! 이런 소리를 듣고서도,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듯이 태연자약하게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손가락을 든 채로, 맨발로 뛰쳐나와서 달려갈 것이다. 불을 끄기 위하여 달려갈 수도 있고, 한 몸의 안전을 위하여 불구멍이를 벗어나려는 몸짓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불이 났다고, 불이야! 불이야! 외치는데 소리를 듣고서도 꺾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중생들이 있다. “온 세상에 욕망의 불길이 타고 있다”면서, 그 욕망의 불길을 끄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불타오르는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까. 온 세상은 불타고 있다. 온 세상은 잿더미가 되었다. 온 세상은 요동치고 있다.” (시수파찰라 비구니, (비구니의 고백(장로니게)), 민족사, 261쪽) 이런 다급한 외침을 듣고서도 들은 채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일부의 사람들만이 그런 것은 아니다. 어쩌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지도 모르겠다.

불이 난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그 불난 집(火宅) 안에서 어린애들처럼 소꿉장난을 하고 있다. 이러한 ‘화해’의 비유’는 대승경전인 <법화경> 등에서 등장하고 있으나, 이미 초기경전에서부터 말해지고 있음을 알게 된다. 부처님 역시 “탐욕의 불이 타고르고 있다. 미움의 불이 타고르고 있다. 어리석음의 불이 타고르고 있다”라고, 어느 산정(山頂)에서 말씀하지 않았던가.

불이야! 외치는 소리를 듣고서도, 태무심하게 잠이나 자려는 사람들은 정말로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다. 소방관들이 온다고 해서 다시 살 수 있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불이 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소방관들이 온다고 한들 그 지시에 따라서 대피를 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왜 인정하지 못할까? 불이 난 사실을 알려주는 스승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스승들이 부른 노래의 여운(餘韻)이 우리 귓가를 맴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일까? 실제 이 질문은, 어쩌면 언제나 자본주의일 수밖에 없는 한 세상을 살아남아야 할 우리들에게는 절박한 질문이 아닐 수 없다. 욕망이 있기에 내 삶 역시 있다. 욕망을 버리라는 것은 삶을 포기하라는 말에 다름 아니다. 이런 절규는 결코 영

화나 연속극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 오히려 우리들이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원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우리 삶의 원동력은 상실되고 말 것이라는 점을 말이다. 원하는 것, 이른바 욕망의 추구를 통한 자기실현, 이것이 삶의 의미라고 생각되는 오늘날 “온 세상에 욕망의 불길이 타고 있다”면서, 그 욕망의 불길을 끄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불타오르는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까.

오히려 욕망을 긍정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타이완 불광사의 성운(聖雲) 대사는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욕



망을 긍정한다. 자본의 축적을 향한 노력은 나쁘지 않다고 말한다. 다만 그러한 축적된 자본을 나눌 줄 알아야 함을 덧붙일 뿐이다. 그런 성운대사도 스님들에게는 무소유를 요구한다. 실제로 불광사의 스님들은 ‘사유재산의 축적’이 용인되지 않는다.

그렇다. 언제나 자본주의일 수밖에 없는 인류사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인간은 욕망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 욕망의 추구가 아무리 선하다고 하더라도, 욕망의 전차가 달려가야 할 선로를 벗어나서는 안된다. 그런 뜻의 말씀이 아니겠는가. 탈선하는 순간, 하늘 높이 욕망의 불길이 치솟는다.

돈을 버는 것은 좋다. 다만 그 과정에, 그 수단에 ‘길’이 있다는 것이다. 그 ‘길’을 벗어나면, 불길이 하늘 위로 치솟게 되리라. 그 ‘길’을 알지 못하고, 그 ‘길’을 사수(死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 많기에, 우리가 사는 오늘날의 세상 역시 ‘잿더미’가 되어버렸다. 그 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온 세상은 불타고 있다!”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주성원 기자의
기초 교리 <3>

계의 의미와 오계

자기와의 약속...지키겠다는 마음 중요

불·법·승 삼보에 귀의한 재가불자는 다섯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금기 사항이 있다. 살아 있는 생명을 죽이지 말 것 [不殺生]·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 것 [不偷盜]· 부부간의 상대와 성관계를 갖지 말 것 [不邪淫]· 거짓말 하지 말 것 [不妄語]· 술을 마시지 말 것 [不飲酒] 등의 오계(五戒)가 그것이다. 재가자는 삼보에 귀의 한 뒤 오계를 받음으로써 정식 불자가 된다.

계(戒)는 산스크리트어로 쉼(śīla)이다. 쉼이라는 습관, 성격, 품성 등 여러 가지 뜻이 있으나 계를 지칭할 때는 ‘도덕적 행위’를 뜻한다. 여기서 말하는 도덕적 행위는 수행에 들어가기 전에 나쁜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스스로의 약속’, 즉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말한다. 따라서 계를 지킨다는 것은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맹세이다.

불교에서 계의 종류는 다양하다. 계는 크게 출가계(出家戒)와 재가계(在家戒)로 나뉘는데, 출가계는 출가한 비구·비구니 스님들이 지켜야 할 계로, 수백 가지가 넘는다. 이에

비해 재가계는 불교에 귀의한 재가자들이 수지(受持)하는 계로, 출가계보다 개수가 현저히 적다. 그 대표적인 계가 바로 오계이다.

부처님은 재가자들에게 자기 자신과 타인을 위해 오계를 받아 잘 지키도록 권했다. 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초기 불교 경전과 <아함경>에 다음과 같이 남아있다.

- 1. 불살생계는 살아있는 생명, 즉 사람, 축생, 어류, 곤충류 등 어떠한 중생도 죽이지 않는 것이다. 직접 자기 손으로 죽여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시켜 죽여도 안 된다.
- 2. 불투도계는 주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물건을 움직여서는 안 되고, 훔치는 것도 안 되며, 훔치려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육근(六根)을 다스려 못하게 하는 것이다.
- 3. 불사음계는 잘못된 성행위를 하지 않고, 자기 배우자의 외성에 대해 음란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 4. 불망어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인데 말을 함에 있어 때에 따라 침묵하거나 진실을 말한다. 때에 따른다는 말은 상황에 맞는 자세를 취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진실이라도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침묵한다. 그러나

진실이고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상대가 불쾌하게 여겨도 그것을 말한다.

5. 불음주계는 술과 같이 부주의의 토대가 되는 것을 마시지 않는 것을 일컫는다. 어떠한 이유에서도 취하게 만드는 것은 마시지 않는다. 술에 취하면 계를 지키기 어려워지고, 결국엔 인신불성이 돼 해로운 상황으로 내몰린다.

이러한 다섯 가지 멀리함이 오계이다. 불·법·승 삼보에 귀의해 믿고 따르는 불자들은 최소한 이 오계를 지켜야 한다. 하지만 수계(受戒)를 받고도 술과 부정할 것을 끊지 못해 계를 어긴다면 문제가 되지만, 가족부양을 위한 희생과 생계유지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유연한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 현대사회에서 재가자들이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계를 어기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하기 싫어도 해야만 하는 고(苦) 속에서 살아가는 중생들이기 때문이다.

이따기자나 ‘계’는 스스로와의 약속이다. 실수로 어겼다고 해도 바로 뉘우치고 다시 발심해 계를 지켜나가겠다는 마음 가짐이 중요하다.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모집

영남 전통 범음·범패 교육원에서 2012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작법(바라춤,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1. 교육기간 및 과정(1년)
 - 가. 초급과정(2개월) ■ 송 주 : 도량석, 종승등
 - 예 경 : 향수해례, 사성례,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예불
 - 권 공 : 삼보통정, 상단·중단권공, 각단불공, 요량, 목탁
 -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육, 옹호계(신중작법39위,104위), 지장정, 시왕도정, 전사식, 관음의식, 상응영반, 화엄사식, 구병사식, 봉승편
 - 다.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리나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시,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달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2. 입학식 및 개강일시
 - 입 학 식 : 2012년 3월 8일(목요일) 오전 11시
 - 개 강 : 2012년 3월 8일(목요일) 오후 1시
 -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5시 (사정에 따라 요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 (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종무원에서 교부)
6. 강의장소 및 접수처:
 -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 1804-5번지
 - 대한불교 ㉔ 조계종 총무원 자혜불교대학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53)581-0232 / 053)581-0233 054)974-2605 / 011-544-2605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

경 대한민국 중요 무형문화재 50호 축

“태고종 영산재”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등재

전통 범음범패(바라작법) 과정 학인모집

■ 교육 과정

(1) 초·중급과정

- ◆ 조석예불 ◆ 사시불공, 각단불공, 시달림
- ◆ 바라춤 : 요잡(막바라), 관육바라, 천수바라
- ◆ 나비춤 : 사방요신, 도량계
- ◆ 49재, 천도의식

(2) 상급과정 - 초·중급 이수자에 한함

- ◆ 사다리나바라, 화의제바라,
- ◆ 신중작법, 육건이
- ◆ 다게나비춤작법, 운심계작법
- ◆ 가지계

■ 강주스님 : 교무국장 성우

- ◆ 교육시간 : 초·중급 - 목요일 오전 10시 ~ 1시
- ◆ 상 급 - 목요일 오후 2시 ~ 6시
- ◆ 개강일시 : 2012년 3월 8일(목) (수시모집가능)
- ◆ 수 강 료 : 입학금 10만원 (교재비 포함), 3개월 30만원
-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 (본 교육원에서 교부), 반명함사진 1매
- ◆ 접수기간 : 상시모집
- ◆ 연 락 처 : 054)975-4339

■ 접수처 및 강의장소

한국불교태고종 경북교구종무원 (전화접수 가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1123-1번지 HD빌딩 2층

한국불교태고종 경북교구종무원